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2.18.(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로 배포해드린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초·중등 학생과 교사들이 평화·통일 인식 및 학교 통일교육 실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11월부터 12월까지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주요한 결과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초·중등 학생들이 52.6%가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27.1%의 학생들은 북한을 '경계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통일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한 학생들의 61.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5.0%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쟁위협의 해소'가 27.2%,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가 25.5%, '이산가족의 아픔 해결'이 20.9%로 나타났습니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가 29.8%,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가 25%, '남북 간 정치제도의 차이 때문에'가 17%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사를 받은 학생들의 78.5%가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향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사회적 공감대 및 분위기 조성, 교수 및 학습자료 개발, 학교 선생님들의 전문성 강화, 관련 법·제도 정비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의 전체 내용은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일부 장차관은 별도의 외부 일정 없이 부 내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볼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모두에 준비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사전에 질문 주신 부분이 없어서 브리핑을 이것으로 마무리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